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주세요. 이 책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자 만 세계

도전하는 딸에게
보내는 응원가



김현애 글 송영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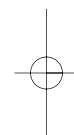


포인팅북이름

여자
만
나
세

도전하는 딸에게
보내는 응원가

또인돌어린이



또인돌어린이

뜨인돌어린이

도전하는 딸에게 보내는 응원가

여자 만세

글 김현태 그림 유남영

초판 1쇄 발행 2008년 11월 20일

펴낸곳 뜨인돌어린이 펴낸이 박미숙

마케팅책임 김원중 제작책임 정광진 편집장 인영아

책임편집 이운화 기획편집팀 이경화 이경숙 신혜연 이슬아정은선 디자인팀 김세라 오경화

마케팅팀 이학수 오상욱 엄경자 최인수 총무팀 김용만 고은정

필름출력 공간 인쇄 대신문화사 제책 시아북바인딩

신고번호 제313-2008-131호 신고년월일 2005년 8월 5일

주소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6-22 (술내1길 16) 2층

대표전화 (02)337-0212 팩스 (02)337-0232 주문전화 (02)337-5252

뜨인돌 홈페이지 www.ddstone.com 노빈손 홈페이지 www.nobinson.com

© 2008 김현태

ISBN 978-89-92130-63-9 73810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뜨인돌어린이

차 례

1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로 내 친구를 지켜요 8



아웅산 수지가 띄우는 편지 · 20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여성 정치가 — **아웅산 수지** · 24

2 자신감이 생기면 발표 시간이 기다려져요 ... 26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띄우는 편지 · 36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여류 비행사 — **아멜리아 에어하트** · 40

3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42



마가렛 버크 화이트가 띄우는 편지 · 54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건 사진작가 — **마가렛 버크 화이트** · 58

4 긍정적인 마음은 희망을 선물해 줘요 62



프리다 칼로가 띄우는 편지 · 74
절망을 예술로 승화한 화가 — **프리다 칼로** · 76

5 끈기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78



다베이 준코가 띄우는 편지 · 90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여성 산악인 — **다베이 준코** · 92

6 창의적인 생각은 나를 발전시켜요 96



이사도라 덩컨이 띄우는 편지 · 110
현대적으로 무용을 승화시킨 무용가 — **이사도라 덩컨** · 112

7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꿈꿔요 116



마가렛 대처가 띄우는 편지 · 128
영국을 강한 나라로 키워 낸 최초의 여자 수상 — **마가렛 대처** · 130

8 봉사는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줘요 134



마더 테레사가 띄우는 편지 · 146
세상을 환하게 비춘 봉사의 등불 — **마더 테레사** · 148



여자도 마음만 먹으면 꿈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3월 8일' 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쉽게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할 거예요.

그날은 바로 '세계 여성의 날' 이랍니다. 이날은 이 세상 모든 여성의 발전을 위해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하여 만들어진 날이에요.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았지요. 그런 와중에도 여자들은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며 열심히 살았고, 또한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요.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소녀 잔 다르크가 그랬고, 우리나라의 유관순이나 신사임당도 훌륭한 일을 해냈지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에 대한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여자에게 그리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라고 포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꿈과 성공을 이루는 데 결코 장애가 될 순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만 있다면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아니 남자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대통령은 물론 경찰, 군인, 우주인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책에 나오는 위대한 여자들을 통해 여자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람임을 알고,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훗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멋진 여자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자들만의 이야기, 여자들만의 세상 속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딸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는 지은이가



아웅산 수지 (1945~)

정치학을 공부한 그녀는 1988년 영국에서 돌아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군사 정권(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정치 권력)에 의해 집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민주화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아웅산 수지가 띄우는 편지
-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여성 정치가 — 아웅산 수지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로
내 친구를 지켜요

또인돌이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



“오늘은 얼마 가져왔어?”

“오, 오, 오늘은 오천 원밖에 없는데.”

유난히 키가 작은 영호가 상주에게 오천 원을 내밀며 울먹였다.

“정말로 이게 다야?”

“응.”

“뒤져서 더 나오면 알지?”

그 말에 잔뜩 겁에 질린 영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너, 왜 뒤로 물러나? 돈 더 있지?”

“어, 어, 없어.”

덩치가 큰 상주는 영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곤 영호의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없다니까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인마!”

상주는 영호의 바지 안쪽 주머니에까지 손을 넣었다.

“어라, 여기 천 원이 더 있는데 없다고 했네!”

“어? 그게 거기에 있었네.”

영호는 마치 몰랐다는 듯 얼버무렸지만 상주는 영호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악!”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맞을 줄 알아! 내일도 오천 원이야!”

“.....”

“이 자식이 왜 대답이 없어. 어디 더 맞아 볼래?”

“아, 아, 알았어.”

영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주가 영호를 향해 주먹을 움켜쥐며 무서운 표정을 짓자 영호는 얼른 몸을 움츠렸다.

“자식, 겁먹기는.”

잔뜩 겁에 질린 영호의 모습이 우스웠는지 상주는 킥킥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영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누군가 영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야!”

바로 부반장 혜진이었다.

“어? 혜진아.”

“너, 재한테 돈을 뺏기면서도 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 하니?”

조금 전의 일을 혜진이가 봤다는 사실 때문에 영호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빠, 빠, 뺏기다니. 그렇지 않아. 그냥 빌려 준 거야.”

“영호, 너! 거짓말할 거니? 내가 다 봤는데.”

영호는 혜진이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래, 네가 본 그대로야. 절대로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영호의 부탁에 혜진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뭐? 알리겠다고?”

“그래.”

“너 지금 미쳤어?”

“너야말로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지.”

영호는 양손을 힘껏 내저었다.

“혜진아, 그러지 마. 그러면 난 재한테 또 맞는단 말이야.”

“못 봤다면 모를까 봤으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시 받아 내고 너에게 사과하도록 만들 거야.”

영호는 혜진이가 나서는 게 불안하고 싫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이건 내 일이야. 왜 자꾸 문제를 키우는 거야!”

“이 바보야, 네가 이렇게 약하게 나가니까 상주가 널 자꾸 괴롭히

고 돈까지 뺏는 거잖아. 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영호는 참으로 난감했다. 혜진이의 말을 따르자니 상주가 두렵고, 그냥 있자니 앞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다.

“영호야, 내가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저, 저, 정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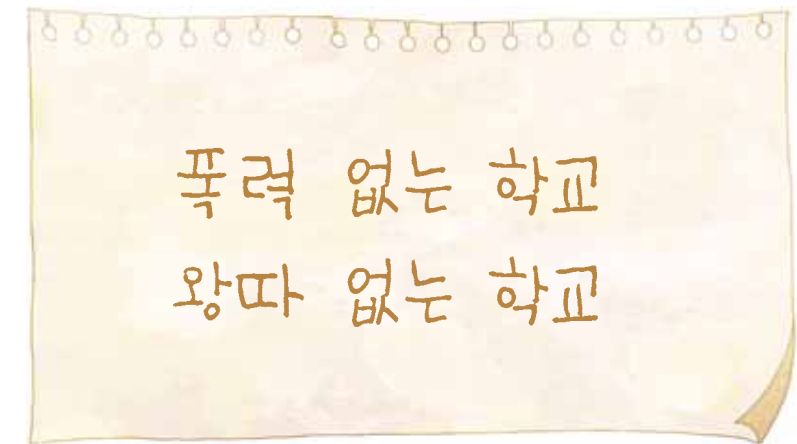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이는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영호에게 다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치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혜진이도 난감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그 방법도 좋긴 한데……. 하지만 선생님이 상주를 불러서 혼낸다면 결국 영호에게 피해가 가게 될 거야.’

혜진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그래, 그 방법으로 하자.”

혜진이는 종이 박스 위에 도화지를 붙였다. 그러곤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로 큼지막하게 짧은 문구를 적었다.



다음 날, 혜진이는 어젯밤에 만든 팻말을 두 손으로 번쩍 들고 학교 정문 앞에 섰다.

“저게 뭐야?”

“왜 저러지?”

“폭력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 저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어? 혜진이잖아. 근데 저기에 뭐라고 적은 거야?”

아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는 혜진이를 보고 한마디씩 했다.

반장 석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혜진이에게 다가갔다.

“혜진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면 모르니? 폭력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

혜진이는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도 얼굴이 왠지 화끈거렸다. 하지만 영호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다.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는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반면 눈살을 찌푸리며 투덜거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재 뭐니? 잘난 척하기는.”

“그러게 말이야. 자기가 무슨 영웅인 줄 알아.”

아이들의 비난 어린 소리에도 혜진이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팻말을 더 높이 들었다.

잠시 뒤, 허겁지겁 학교 정문 쪽으로 담임 선생님이 달려왔다.

누군가 담임 선생님에게 혜진이의 일을 알린 모양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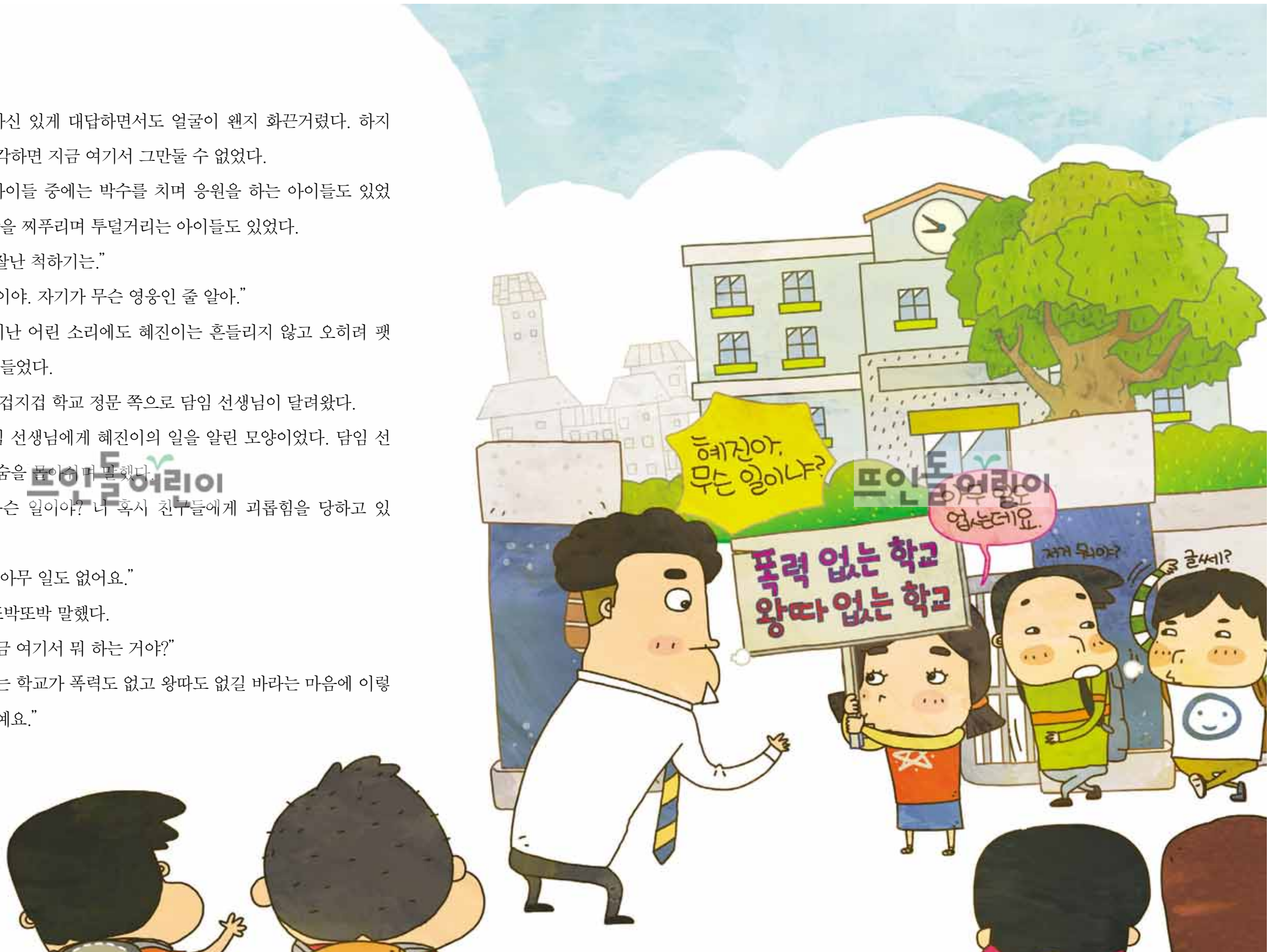
“혜진아,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니?”

“아니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혜진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다니는 학교가 폭력도 없고 왕따도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구나. 그런데 왜 굳이 학교 정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거니?”

혜진이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려고요.”

선생님은 혜진이의 말에 깜짝 놀랐다. 마냥 어린아이인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까지 가지고 있다니.

순간,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졌다.

“혜진아, 네 얼굴 보기가 무섭구나. 네가 선생님보다 더 낫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거라.”

선생님은 혜진이를 그 자리에 남겨 두고는 교무실 쪽으로 힘껏 달려갔다.

그때, 영호가 혜진이를 발견했다.

영호는 혜진이를 보는 순간,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이게 뭐야?”

“넌 걱정하지 마. 너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을 테니까.”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해.”

영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얼른 교실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 뒤, 선생님이 다시 혜진이 곁으로 다가왔다.

“혜진아, 혼자서 힘들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 역시 준비해 온 팻말을 들고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혜진이 옆에 섰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폭력 없는 학교가 될 때까지
매일 아침 여기에 서 있을 겁니다!

교문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이상한 표정으로 혜진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혜진이는 아무렇지 않았다. 혜진이 옆에는 든든한 담임 선생님이 있어 주었으므로.



아웅산 수지가 띄우는 편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혹시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본 적이 있나요? 친구가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나쁜 형들이 어린 아이들의 돈을 뺏는 것을 본다는지 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런 일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수도 있겠지요.

누구나 그런 일을 겪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선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정의'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장군이셨던 나의 아버지는 미얀마의 독립을 위해 일하셨지요. 그런데 내가 두 살 때,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독재 정권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내 마음속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정의롭게 산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저녁 무렵,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꽤 큼직한 잉어 한 마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시계를 보더니 도로 잉어를 놓아주는 거예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왜 잉어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길 보거라. 저녁 6시부터 낚시가 허용된다고 적혀 있잖니.”

아들은 얼른 시계를 보았어요. 시계는 6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이제 곧 6시네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단다. 너와 내가 보고 있고, 하늘이 보고 있잖니. 사람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사람

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알겠니?”

“예.”

아버지의 말을 듣자 아들은 남과 자신을 속이려고 했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불의를 거부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면 먼저 나서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여성 정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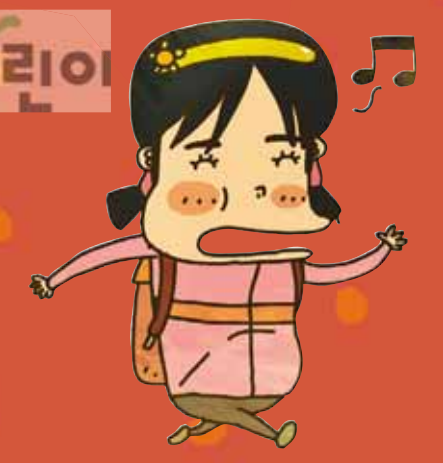
아웅산 수지

아웅산 수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영국인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자신감이 생기면
발표 시간이 기다려져요

또인돌어린이



아멜리아 에어하트 (1897~?)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여 모든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 후 태평양 횡단, 미국 대륙 횡단 등을 성공하여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띄우는 편지
-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여류 비행사 — 아멜리아 에어하트

아이들이 모두 교실을 빠져나가자,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 걸린 상자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상자에 달린 자물통을 열쇠로 열었다. 그 상자는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아무도 모르게 쪽지에 적어서 넣는 ‘고민 상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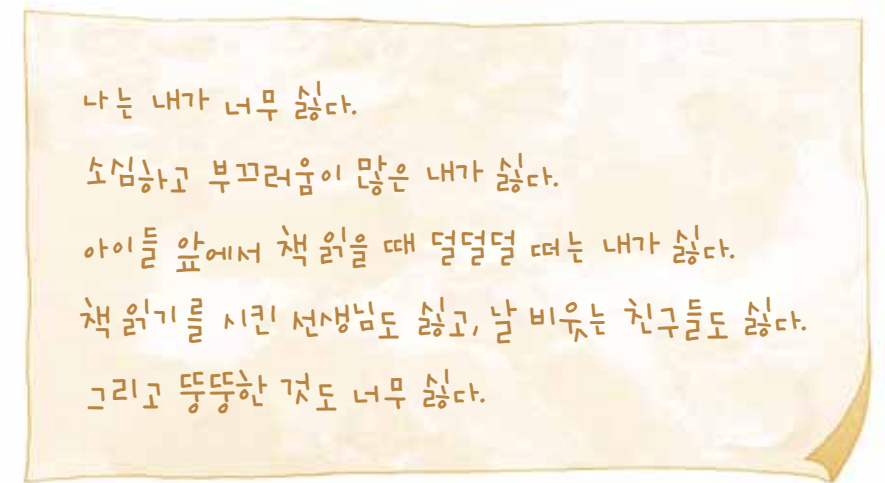
“오늘은 고민 상자에 쪽지를 넣은 아이가 있으려나.”

선생님은 상자 안에 손을 넣으면서 내심 쪽지가 없길 기대했다. 쪽지가 없다는 건 반 아이들의 고민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기대는 곧 빗나갔다. 손가락 끝에 쪽지 한 장이 닿았다.

“누가 이걸 넣었지?”

선생님은 접혀 있는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종이에 글자가 뽁뽁하게 적혀 있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그 쪽지를 누가 썼는지 대변에 알 수 있었다.

“민지가 쓴 거군.”

선생님은 지난번, 민지가 책을 읽다가 덜덜덜 떠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놀림 당했던 일을 떠올렸다.

가뜩이나 외모 때문에 늘 축 처져 있는 민지가 아이들의 놀림에 더 자신감을 잃은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 민지에게 도움을 줘야 할 텐데.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 주고 민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을까?”

선생님은 민지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 선생님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쳤다.

“그래, 그 방법을 써 보는 거야!”

며칠이 지났다. 어느 때와 같이 민지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섰다. 그런데 대문 앞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 이게 뭐지?”

노란 머리띠였다.

“와, 예쁘다. 누가 이걸 여기에 떨어뜨렸지?”

민지는 얼른 머리띠를 주웠다. 그런데 머리띠 한쪽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머리띠를 놓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머리띠는 마법의 머리띠입니다.

“뭐, 마법의 머리띠?”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도로 머리띠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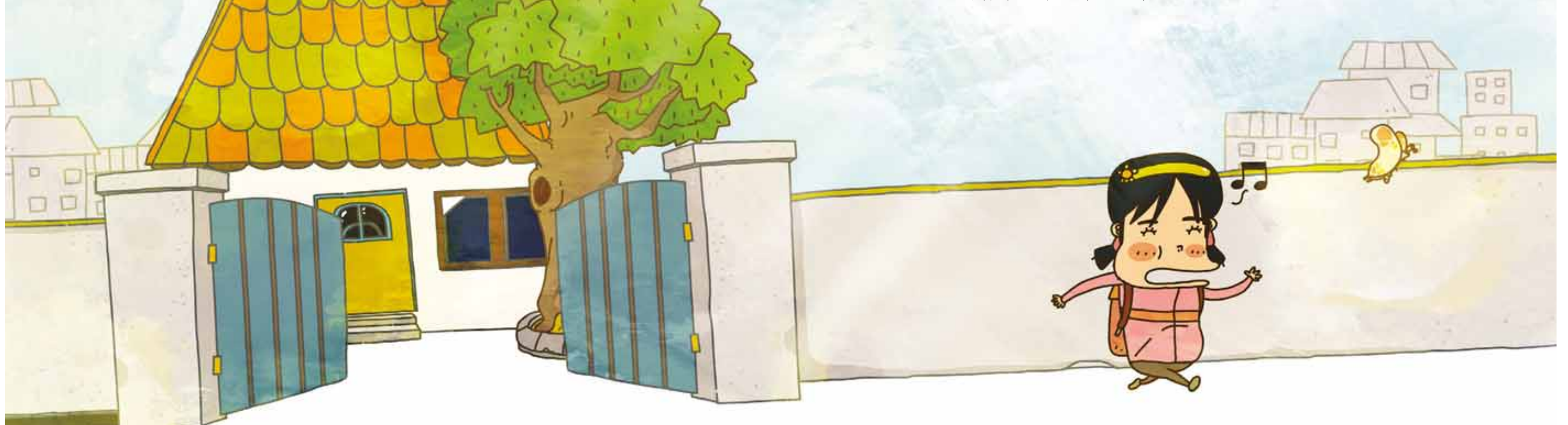
하지만 민지는 몇 걸음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 한번 시험 삼아 해 볼까?”

민지는 뒤돌아 다시 대문 앞으로 왔다. 그러곤 노란 머리띠를 주워 머리에 꽂았다.

순간, 민지는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았다. 발걸음도 어느 때와는 달리 아주 가벼웠다.

‘마법이 벌써 일어난 걸까?’



교실에 도착한 민지는 짝꿍 판수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판수야, 안녕!”

“민지야, 안녕. 그런데 오늘따라 얼굴이 참 밝아 보이네.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판수의 말에 의아해하고 있는 민지의 등을 수희가 콧코 찌르며 말했다.

“민지, 너 요즘 운동하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저, 정말이니?”

“예전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걸.”

“그래? 고마워.”

수희의 말에 민지는 기분이 좋아졌다.

잠시 후, 반장 은찬이가 민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은찬아, 이게 뭐니?”

“한번 펼쳐 봐.”

은찬이가 내민 건 생일 초대장이었다.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널 초대하는 거야.”

“나, 날?”

“응. 이따가 꼭 와야 돼.”

민지는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았다. 사실 민지는 예전부터 활발하

고 무슨 일이든 푹부러지게 해내는 은찬이를 좋아했다. 함께 얘기도 나누고 싶었고, 놀고도 싶었지만 소심한 성격과 뚱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감히 반장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민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졌다.

‘마법의 머리카 때문일까?’

정말이지 아침부터 민지는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뻐다.

무뚝뚝한 짝꿍 판수가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 주고, 수희가 날씬해졌다고 칭찬을 해 준 것도 모자라 반장 은찬이까지 생일 초대를 해주다니. 이런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민지는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주었다. 어느새 민지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의 꽃씨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은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까 봐 대부분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죠. 사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

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용기를 갖고 계속 나서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더 발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발표하는 것을 피하지만 말고 자신 있게 도전해 보세요. 자, 모두 알겠죠?”

“예.”

“그럼, 누구부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볼까요?”

그러나 아이들은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는 순간, 마법의 힘이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어요. 모두 자신감을 가져 보세요.”

“마법의 힘?”

민지는 마법의 힘이라는 말을 듣고 머리띠를 만지작거렸다.

‘그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면 분명 머리띠가 날 도와줄 거라 믿어.’

민지는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오늘은 민지가 해 볼까?”

“예.”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 앞으로 나갔다. 평소와 다른 민지의 모습에 아이들은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와, 민지 너 웬일이니? 오늘은 자신감이 펄펄 넘치네.”

“살 빠지고 예뻐지더니 정말 달라졌어.”

뒷자리에 앉은 수희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이들의 호응에 민지는 더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제, 제가 읽은 동화책은 ‘라푼첼 공주’입니다.”

민지는 가슴이 두근두근 댔다. 하지만 다른 날과 달리 자꾸 용기가 생겼다.

“예, 예, 옛날 어느 자그마한 나라에 자, 자, 자식이 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매일 기도를 했고 하늘은 왕 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와, 와,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자, 왕은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만큼 기뻐했습니다…….”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민지는 큰 소리로 발표를 끝까지 마쳤다.

“정말 잘했어요.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은 민지의 눈빛에서 도전 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늘 도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민지는 선생님의 칭찬에 머리띠를 만지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도, 선생님의 비밀 작전에 참여한 판수, 수희, 은찬이도 그런 민지를 보면서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띄우는 편지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라!

프린돌어린이

여러분, TV나 영화에서 비행기를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비행기를 보거나 타 본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비행기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내가 살던 시대는 비행기가 막 발명되기 시작한 때라서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요. 그로 인해 비행기 조종사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는 건 대단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지요. 그렇게 위험한 일에 쉽게 나서는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행 학교에 입학해서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을 때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웠어요.

‘비행 도중 비행기가 고장 나면 꿈쩍없이 죽고 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내 자신을 계속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결국 그것을 이겨 내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프린돌어린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니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고, 결국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이 소심하고 겁쟁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두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피할 순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또 아문센이 1911년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하고, 1926년에 비행선으로 북극을 처음으로 횡단할 수 있었던 힘



프린돌어린이



프린돌어린이

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도전한 '의지' 랍니다. 그 의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들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해서 의지가 더 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랍니다.

혹시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하지만 그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랍니다. 도전했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여자가 될 거예요. 보다 강하고 당차고 의지력이 있는 진짜 여자 말이에요.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여류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마가렛 버크 화이트 (1906~1971)

1926년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에 입사해 산업 사진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여류 사진가이다. 여성 최초로 종군 기자(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가 취재하는 사람)가 되어 한국 전쟁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으며, 1951년 미국 최고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마가렛 버크 화이트가 띄우는 편지
-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건 사진작가 — 마가렛 버크 화이트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멋진 군복을 입은 교관이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오리걸음으로 저 기둥까지 선착순 세 명입니다. 출발!”

아이들은 뚝뚝거리며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해 보지 않았던 일이라 한 발짝을 떼기도 힘들었다. 교관은 더욱 소리 높여 말했다.

“왜 이렇게 느릅니까? 빨리 하십시오. 선착순 세 명을 제외하고는 또 오리걸음입니다.”

아이들은 세 명 안에 들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남자 아이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서는 여자라고 안 봐줍니다.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십시오.”



남자 아이 세 명이 먼저 들어왔다.

“세 명은 여기서 쉽니다. 나머지는 다시 저 기둥까지 오리걸음으로 갔다 오십시오. 이번에는 선착순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안에 들지 못하면 쪼그려 뛰기 삼십 회입니다. 자, 출발!”

아이들의 얼굴엔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해병대 체험장에서 는 그 어떤 불평거리도, 핑계거리도, 나약함도 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기둥을 향해 오리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쪼그려 뛰기 삼십 회 실시!”

교관은 늦게 들어온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정희의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했다. 다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었지 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정희는 다른 아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오기가 솟아올랐다. 정희 는 양손으로 귀를 잡고 그 자리에서 쪼그려 뛰기를 했다. 허벅지와 장딴지가 무척 아팠지만 그래도 꼭 참았다.

교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유격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교관의 입에서 기다리던 말이 튀어나왔다.

“와!”

교관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유격 훈련을 받느라 수고가 참 많았습니

다. 지금부터는 식사를 하고 각 조별로 텐트를 칠 것입니다. 텐트는 조교들의 시범을 보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이들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정희 뒤에 선 덕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빠는 괜히 ‘어린이 해병대 체험 캠프’에 날 보내서 이런 고생을 시킨담!”

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발로 돌멩이를 걷어찼다.

교관은 그런 덕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저기 삼 조 맨 끝에 있는 어린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저, 저요?”

정희가 자신을 가리키는 줄 알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 뒤 말입니다! 이름이 뭐니까?”

정희는 고개를 뒤로 돌려 덕수에게 말했다.

“덕수야, 교관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

그제야 덕수는 아이들과 교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 찼다.

덕수는 주눅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덕수요.”

교관은 맘에 들지 않은 듯 고개를 내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아직도 기합이 부족합니까?”

“김! 덕! 수입니다!”

교관의 호통에 덕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윗사람이 말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희는 식판에 밥과 반찬을 배식 받고는 덕수 옆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비록 정희가 좋아하는 햄 반찬은 없었지만 훈련을 받느라 배가 많이 고팠던 탓에 맛있게 먹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은 직접 자신이 먹은 식판을 들고 나가 닦기 시작했다.

“엄마가 있었으면 대신 닦아 줄 텐데. 이게 뭐야.”

정희는 식판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그런데 식판을 대충 물로 행구는 덕수의 모습이 보였다.

“야,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떻게 해. 나처럼 쓱쓱 씻어야지.”

그 말에 덕수는 정희를 찌려보았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대충대충 씻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잔소리하지 말고 너나 잘해!”

정희도 가만있지 않았다.

“야, 대충대충 씻으면 더럽잖아. 내일 아침에 그 식판으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네가 다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씻으면 어떻게 해? 아까 교관님 말씀 못 들었어? 자기가 먹은 식판은 반짝반짝 윤기가 나도록 닦으라고 했잖아.”

덕수는 정희가 알미웠다.

“네가 뭘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이럴 거야!”

그때였다. 뽀뽀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그건 집합 신호였다.

정희와 덕수는 서둘러 뛰어갔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조별로 텐트를 치는다. 실시!”

정희와 덕수는 같은 삼 조였다. 정희와 덕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덕수야, 이 줄 좀 잡아 줘.”

덕수는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줄을 잡았다.

“세게 좀 잡아. 그래야 텐트를 세우지.”

“야, 대충대충 해. 텐트 잘 친다고 해서 누가 상 주냐?”

덕수가 정희의 말에 짜증을 냈다.

“지금 상 받으려고 그러냐? 우리 조가 잘 곳이야. 이왕이면 안전하게 지어야지.”

그러나 덕수는 모든 것이 귀찮았다.

“어차피 오늘 하루만 텐트에서 자고 내일은 내무반에서 잔다고 했잖아.”

“대충했다가 텐트가 무너지면 어떡하니?”

“그럴 리 없어. 대충 끝내고 그 시간에 노는 게 낫지.”

“그래도…….”

“야, 김정희! 왜 이렇게 까다롭나? 뭐 하러 괜한 일에 힘을 빼? 너 여기서 평생 살 거야?”

“그렇지만…….”

“그럼, 너 혼자 해. 야, 우리는 저기서 좀 쉬자.”

덕수는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나무 그늘로 갔다.

정희도 어쩔 수 없이 대충 망치질을 하고는 덕수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날 밤, 삼 조 아이들은 텐트 속에서 과자를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힘들다. 군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야, 힘들긴 뭐가 힘드냐? 난 재미있기만 하던데. 특히 사격 연습이 재밌더라.”

“야, 그렇게 재미있으면 넌 커서 군인이나 해라.”

두두두두.



갑자기 빗방울이 텐트를 두드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 비 오나 봐.”

두두두두두두.

잠시 뒤, 빗방울이 더 굵어졌는지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다.

“일기 예보에서는 비 온다고 안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야, 우리 텐트 괜찮을까?”

그러자 덕수는 정희의 말을 무시하듯 말했다.

“걱정 마. 넌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걱정도 대충대충 좀 해라.”

그런데 정희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텐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람이 점점 강해져 텐트는 더 심하게 흔들렸다.

“어, 어. 텐트가 너무 흔들려.”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이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다. 덕수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텐트가 무너지자 삼 조 아이들은 허둥지둥 텐트 밖으로 나와 소리쳤다.

“으악!”

정희는 덕수를 췌려보며 말했다.

“덕수 네 말대로 대충대충 하다가 이 꼴 났잖아!”

덕수는 정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비를 쫓딱 맞으며 다시 텐트를 세우기 시작했다.

“대충대충 하다가 이 꼴이 됐네. 휴, 정희야 미안해.”

덕수는 텐트 줄을 잡으며 정희에게 사과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충대충 하지 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지?”

덕수의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덕수는 마치 물에 빠진 생쥐마냥 처량해 보였다.

또인돌어린이



마가렛 버크 화이트가 띄우는 편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프린돌어린이

나는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오르기도 하고,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아내기 위해 사진기를 둘러메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지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진을 찍어야 했지요. 그 두려움은 매우 컸지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는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었

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보다는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을 용기 있게 도전하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한 내 자신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진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그 일이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대충 넘기다 보면 습관이 되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어느 나이가 많은 건축가가 곧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사장님은 건축가에게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더 지어 달라고 요구했지요. 건축가는 그 일이 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인데 대충 짓지, 뭐.’

프린돌어린이

건축가는 값싸고 좋지 않은 재료로 대충 집을 지었어요. 얼마 후 사장님에게 집 열쇠를 주며 말했지요.

“사장님, 다 지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다시 열쇠를 건축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소. 이 집은 당신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건축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내가 살 집이었다면 가장 좋은 재료로 멋지게 지었을 텐데.’

프인돌어린이



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더 좋은 기회와 성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려고 하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성별은 물론 나이도 상관없답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를 정해 보세요. 남들이 여자라서 힘들다고 말려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만큼 많이 힘들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도 나처럼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꼭 자신이 꿈꾸던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서 이뤄낸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건 사진작가

마가레 버크 화이트





프인돌어린이

“내게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에
사진가로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지요.”





프리다 칼로 (1907~1954)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
적 고통과 아이를 낳을 수 없
다는 사실 등 끝없는 시련을
이겨 내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
의 우상이었고, 1984년 그녀의 작품은 멕시코의
국보가 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헨리포드 병원>,
<나의 탄생>, <다친 사슴> 등이 있다.

- 프리다 칼로가 띄우는 편지
- 절망을 예술로 승화한 화가 — 프리다 칼로



긍정적인 마음
프린들어린이
희망을 선물해 줘요

4



“수지야, 주사 맞아.”

간호사가 누워 있는 수지에게 말했다.

수지는 금방 겁먹은 표정이 됐다.

“어제처럼 아픈 주사 아니죠?”

“그래. 오늘은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

“저, 저, 정말요?”

“그렇다니까.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그렇게 세고 있어. 그럼 순식간에 끝날 테니까.”

수지는 천천히 바지를 내렸다.

“참 엉덩이가 예쁘게 생겼네.”

간호사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수지에게 농담을 건넸다. 그러나 수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

순식간에 주사 맞는 게 끝났다. 눈물이 찔끔 났지만 수지는 울지 않았다.

옆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엄마가 재빨리 사탕 하나를 수지의 입 안에 넣어 주었다.

“수지야, 이거 먹어.”

입 안에서 사탕이 서서히 녹자 주사의 따끔함도 사라지고 달콤한 사탕 향기가 입 안 전체에 퍼졌다.

“수지야, 왜 일어나려고?”

“응. 누워만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 있을래.”

엄마는 수지를 부축했다. 수지는 다리에 석고 붕대를 감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앉거나 눕거나 화장실에 가야 할 때는 엄마가 수지를 도와주었다.

엄마는 수지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수지에게 말을

걸었다.

“수지야, 밖에 민호 왔는데 들어오라고 할까?”

그러자 수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싫어.”

엄마의 말에 입 안의 달콤함이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엄마는 다시 한 번 수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그래도 민호 한번 만나 봐. 민호가 너 만나려고 학교 끝나고 매일 찾아오잖니.”

“싫어. 싫단 말이야. 민호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

말이 끝나자마자 수지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꺾 돌렸다. 수지는 석고 봉대를 감은 오른쪽 다리를 보았다. 순간,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수지야, 다시는 민호 얘기 안 꺼낼 테니까 울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울지 마.”

엄마는 황급히 수지를 달래 주었다.

그러나 수지의 눈물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다. 울고 있는 수지를 바라보니 엄마의 마음은 더더욱 아팠다.

“그래, 알았어. 수지야, 네 마음 편할 대로 해.”

잠시 후, 수지가 좀 진정되자 엄마는 그 틈을 이용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고개를 푹 숙인 민호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아주머니, 수지가 뭐래요? 들어오래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

“휴, 오늘도 안 되겠구나.”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야, 너한테 미안하구나. 수지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렴.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힘없이 말했다.

“아주머니, 그럼 저 가 볼게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예.”

“수지가 널 만나 주지도 않는데 고생스럽게 뭐 하러 또 오니? 내일부터는 오지 마.”

“아니에요. 그래도 와야죠.”

“그래. 네 마음이 이러니 언젠가는 수지가 널 만나 주겠지. 그럼 조심히 가거라.”

“예.”

민호는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다. 어깨가 축 처진 민호의 뒷모습을 보니 엄마의 마음도 무거웠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고만 안 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일주일 전이었다.

수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맞춰 무용 연습이 한창이었다.

“그래 좋아. 수지야, 조금만 더 우아하게 돌아 봐. 그렇지. 네가 한 마리의 백조라고 생각해. 우아하게 날개를 펴고 물을 차고 하늘을 향해 훨훨 비상하는 것처럼. 그래 바로 그거야.”

엄마는 꽤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수지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여섯 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다. 엄마가 무용 학원 선생님이어서 자연스럽게 무용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돌아야지. 좋아 좋아. 거기서 돌고 턱을 세우고 살짝 무릎을 굽혔다가, 점프! 좋아, 좋아.”

수지는 마치 한 마리의 백조가 된 것처럼 이리저리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수지의 무용 솜씨는 뛰어났지만 아쉽게도 대회에 나가면 늘 이등이었다. 그래서 수지는 이번엔 반드시 일등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지는 연습이 힘들었는지 제자리에 첩퍼덕 주저앉았다.



“많이 힘들지?”

엄마는 수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무용 연습을 할 때는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지만 연습이 끝나면 너무나 다정한 엄마였다.

“응. 나 배고파.”

“엄마가 집에 가서 떡볶이 해 줄까?”

“와, 신난다.”

수지는 순식간에 피곤함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와 수지는 연습실을 간단히 정리한 후, 나란히 손을 잡고 학원

을 나왔다.

수지는 떡볶이를 먹을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방구, 세탁소, 철물점을 지나 공원에 이르렀다.

“수지야!”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짝꿍 민호였다.

“오늘도 무용 연습 했니?”

“응.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면 모르냐. 축구하잖아.”

수지는 민호에게 방긋 미소를 건네곤 공원을 지나갔다.

“엄마,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나 배고파.”

“알았어.”

그때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야, 거기 공 줘!”

수지가 뒤를 돌아보자 축구공이 쏘르르 굴러오고 있었다. 수지는 몇 발자국 걸어가 축구공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렸다.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수지에게로 달려들었다.

“으악!”

수지는 축구공을 줍느라 미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토바이가 수지를 덮쳤다.

무용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난 것이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수지야, 오늘은 왜 아무 말이 없니?”

“.....”

엄마는 수지가 왜 말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무용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속상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자 수지는 울음을 터트렸다.

“으앙. 이제 다 끝이야.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내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마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럴 모르겠니.”

“애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매일 무용 연습만 했는데.....”

엄마는 수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수지야, 기회가 다시 올 거야. 내년에도 대회가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두어 달 있다가 석고 붕대만 풀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정말이야?”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 더 튼튼한 뼈가 될 거야.”

엄마의 위로에 수지의 눈물은 조금씩 멈췄다. 그렇다고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된 건 아니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대신 더 많이 연습하면 내년에는 일등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며칠 후, 수지는 엄마를 조용히 불렀다.

“엄마, 오늘도 민호 왔어?”

“그럼, 네가 사고가 난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문밖을 지키고 있어.”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민호보고 들어오라고 해.”

엄마는 이제야 수지가 안정을 찾은 것 같아 기뻐했다.

“민호야, 수지가 드디어 널 만난다고 하니까. 어서 들어오렴.”

시무룩해 있던 민호는 밝은 얼굴로 수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수지야, 미안해. 이제 괜찮아졌니?”

“응. 처음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네가 참 미웠어.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난 겸손함을 배웠어. 다 네 덕분이야.”

수지는 이번 사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일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졌으며 친구의 따뜻한 우정과 사랑도 깨달았다.



프리다 칼로가 띄우는 편지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희망만은 잃지 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자주 받았지요. 그런 나는 밖에 나가는 게 싫어서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자신이 무척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숨는 거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난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물론 처음부터 친구들과 친해질 순 없었지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니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고, 우리는 어느새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나는 마음속에 멋진 꿈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꿈이 뭐 줄 아

세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땅바닥에 막대기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지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나는 다시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붓을 잡았지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희망의 꽃이 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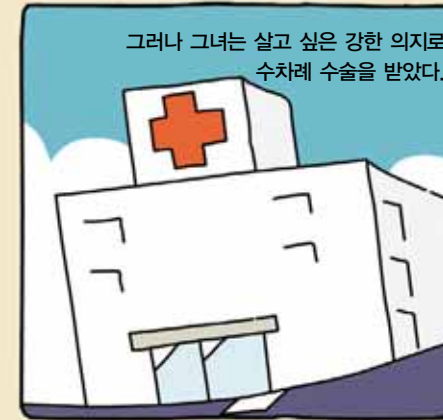
여러분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설령 벼랑을 만났다고 해도 벼랑 끝에 우뚝 서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우세요.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마흔여섯 살에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베토벤은 그 후에 무려 다섯 개의 교향곡을 포함해 아주 위대한 명작들을 탄생시켰어요.

윌마 루돌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목발을 이용해 걸어야만 했던 나약한 소녀였지만, 그녀는 세계 제일의 달리기 선수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지요. 올림픽에 출전해 무려 금메달을 세 개나 딴 거예요.

이처럼 그 어떤 장애도 자신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순 없답니다.

절망을 예술로 승화한 화가





다베이 준코 (1939~)

1975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여성 산악인이다. 1992년에도 여성 최초로 7개 대륙 최고봉 등반에 성공했으며, 지금은 산을 보호하는 환경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 다베이 준코가 띄우는 편지
-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여성 산악인 — 다베이 준코



포인돌어린이
신문내 관심과의
약속이에요

5

“미영아, 똑바로 물어야지 그게 뭐야.”

“아, 아, 안 되,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물어 봐. 마우스피스를 똑바로 물어야 소리를 낼 수 있지.”

벌써 몇 시간째 엄마와 미영이는 색소폰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해 봐. 미영아.”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피스를 물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웠다.

“휴!”

마우스피스를 무는 것이 힘든 이유는 미영이가 어릴 때 뇌성마비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영이의 얼굴은 항상 찌푸린 표정이고

똑바로 걷는 것도 힘들었다. 손가락을 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미영아, 힘들지만 엄마는 네가 꼭 색소폰 연주를 했으면 좋겠어.”

미영이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이토록 미영이에게 색소폰 부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미영이에게 성취감과 독립심을 길러 주고 싶어서였다. 먼 훗날, 미영이가 어른이 되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 어, 엄마. 나 다, 다, 다시 한 번 해 볼게.”

“그래.”

미영이는 다시 한 번 마우스피스를 입에 갖다 댔다.

엄마는 미영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오늘은 그만하자.”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미영이는 엄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어, 어, 엄마. 미, 미, 미안해.”

미영이의 미안하다는 말에 엄마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미영아, 힘들었지?”

“아, 아, 아니.”

미영이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몇 시간째 쉬지도 못하고 색소폰을 불기 위해 안간힘을 썼



더니 입술이 화끈거렸다.

“미영아, 오늘 고생 많았다. 이제 자렴. 알았지?”

“으, 으, 응.”

엄마는 미영이를 따뜻하게 안아 주고는 방에서 나갔다. 미영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미영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색소폰을 손에 들었다. 미영이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다. 젓가락질을 잘 못했을 때도 밤새도록 연습해 성공한 적이 있었다. 그때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색소폰을 멋지게 부는 모습을 엄마에게 꼭 보여 주고 싶었다.

“나, 나, 나, 난 할 거야. 다, 아, 시 할 거야.”

미영이는 마우스피스에 입을 갖다 댔다. 그러곤 마우스피스를 제대로 물기 위해 입 주위의 근육을 열심히 움직였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입 때문에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다. 그러나 미영이는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미영이의 연습은 더더욱 치열해졌다.

새벽녘에 엄마가 미영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서둘러 들어왔다.

엄마는 미영이가 색소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미영아, 너 여태 안 잔 거야?”

미영이는 그저 웃기만 했다.

“이렇게 무리하면 어떻게 해? 내가 괜한 걸 너에게 가르쳤나 보구나. 피곤할 텐데 어서 자렴. 이러다 병나겠다.”

“아, 아, 아니야. 어, 어, 어, 엄마. 이제 나 할 수 있어.”

미영이는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갖다 댔다. 정말이지 입술에 마우스피스가 착, 달라붙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 바람이 세질 않지. 우리 미영이가 해냈구나.”

엄마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영아, 넌 정말로 대단해. 고맙구나.”

미영이는 엄마의 칭찬에 힘입어 이제는 색소폰 불기에 도전했다.

그런데 아무리 힘차게 불어도 바람 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후—.

미영이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거듭했다. 계속된 연습에 입술이 다 틀 정도였다. 미영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미영아, 좀 더 세게 불어 봐.”

뿌뿌뿌. 뿌뿌뿌.

드디어 색소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됐어! 됐어! 소리가 났어!”

엄마는 손뼉을 치며 무척 기뻐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눈물

까지 흘렸다. 엄마의 눈물을 보니 미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영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 어, 엄마.”

엄마는 미영이를 꼭 안아 주었다.

참으로 힘겨운 하루였지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기도 했다.

그 후로도 미영이의 연습은 계속됐다.

뿌뿌뿌 뿌뿌뿌 뿌뿌뿌뿌뿌뿌.

아주 짧은 동요 하나를 배우는 데도 두 달 정도는 걸렸다. 색소폰 소리가 한 번에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 중간 음이 끊기기 일쑤였다.

일반인들도 불기 쉽지 않은 색소폰이었다. 색소폰을 불려면 숨도 길게 내뿔을 수 있어야 하고 체력도 강해야 했다.

미영이에게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힘겨운 일이었다. 하지만 미영이는 불평하지 않고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갔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목요일, 미영이는 색소폰을 챙겼다. 얼마 전부터 미영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복지관에 모여 연주회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어, 어, 엄마. 다녀오, 올게.”

“그래. 조심히 가고 연습 열심히 하렴.”

미영이는 복지관 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복지관에는 먼저 온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바
이올린 소리며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별, 벌써 다, 다, 다 와 있네.”

연습실에는 미영이보다 몸이 더 불편한 아이들도 많았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중철이가 미영이에게 말을 걸었다.

“미영아, 너 악보 다 외웠다면서?”

“으, 으, 응. 연, 연, 연주할 때 나는 악보를 넘길 수 없으니까 다
외워야 해.”

“참, 그렇지. 하여튼 대단해.”

잠시 뒤, 지휘를 담당한 선생님이 연습실에 들어왔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연주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도 이대로만 열심히 연습한다면 아주 멋진 연주
회가 될 거예요. 다들 자신 있죠?”

“예.”

“연주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실수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연습에
임하세요.”

“으, 으, 예.”

아이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 되었다.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자, 아이들은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감미로
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영이도 열심히 색소폰을 불었다.

그런데 그만 미영이가 실수를 하고 말았다. 갑자기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와서 음을 놓치고 만 것이다. 요즘 들어 무리하게 연습을 한
탓이었다.



선생님은 미영이를 크게 야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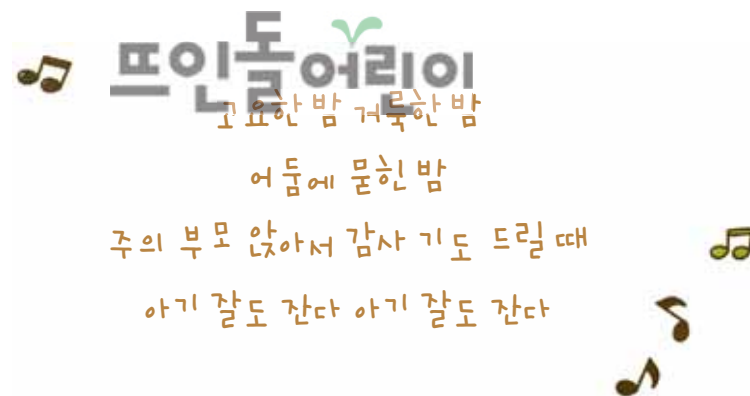
“미영이 너! 음을 놓치면 어떻게 해!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다시 해야 하잖아. 앞으로 이렇게 실수할 거라면 하지 마!”

미영이는 선생님의 엄한 호통에 눈물이 날 뻔했다.

“죄, 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애들아, 미, 미, 미안해.”

선생님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그쳤다. 아이들이 더 강해져 세상과 당당히 맞섰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연습이 시작되었다. 연주에 맞춰 진주가 노래를 불렀다.



오후부터 시작한 연습은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다들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연주회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연습에 임했다.

“미영아, 너 색소폰 정말 잘 분다. 혼자 독주회를 열어도 되겠어.”

쉬는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하나가 말을 건넸다.

“고, 고, 고마워. 너도 저, 저, 저, 정말 피아노 잘 치는데. 네 손가락 피, 피, 피아니스트 이희아 어, 어, 언니가 아마도 네 실력을 보면 까, 까, 깜짝 놀랄 거야.”

“정말? 내 실력이 그렇게 좋아?”

“으, 응.”

아직 실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처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잠시 뒤, 선생님이 다시 연습실로 들어왔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해 볼까?”

“예.”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었다. 아이들은 연주할 자세를 취했다. 지휘봉이 움직이자 곧 연주가 시작되었고, 연습실 창문 틈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미영이는 비록 찡그린 얼굴로 색소폰 연습을 하고 있지만, 연주회 때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다베이 준코가 띄우는 편지

참고 견뎌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탈 줄 아나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중심을 잡기 힘들어 많이 넘어지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반드시 겪고 이겨 내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도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디며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걸 마음에 새겨 두세요.

내가 서른여섯 살 때의 일이에요. 나이 많은 아줌마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다고 하니까, 다들 나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난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기가 생겼지요.

“반드시 산 정상에 오를 거야! 그래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줄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산 정상을 향했어요. 눈보라가 내 얼굴을 때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호흡하기도 힘들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딸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엄마가 해냈다는 걸 보여 주고, 또 여자라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었어요.

결국 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지요. 키가 1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체격으로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정상까지 이끈 것은 나에 대한 믿음과 인내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꼭 지켜 나가도록 하세요.

가끔은 그 도전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도전의 의미가 더욱 값지고 빛나게 느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여성 산악인

다베이
준코



세 살배기 딸을 자장가로 재운 뒤 그녀는
매일 19킬로미터씩 뛰기 시작했다.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몸이 더
힘드네.....



낮에는 피아노 레슨을 하여,



그 돈으로 등산화와 가방 등의 등산용품
구입했다.



다베이 준코는 자신의 꿈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준비 완료!
에베레스트 산으로
출발~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부터 앞섰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녀는
에베레스트 산으로 향했다.



강한 추위와 거센 눈보라를 헤치면서 걷고 또 걷는
험난한 등정길이었다.







이사도라 덩컨 (1877~1927)

고전 무용의 틀에서 벗어나 최초로 현대 무용을 창조한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무용가이다. 그녀의 무용은 그 시대의 여러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 초 미국 여성들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 이사도라 덩컨이 띄우는 편지
- 현대적으로 무용을 승화시킨 무용가 — 이사도라 덩컨

창의적인 생각은
나를 발전시켜요

6

또인돌어린이

고래야 고래!



미술부 선생님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교탁 앞에 섰다.

“너희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미술 대회에 참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해라.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빛내는 일이니까. 다들 알겠지?”

“예.”

학교 대표로 선정된 다섯 명의 미술부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도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것 같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서 출발하렴.”

아이들은 서둘러 도화지, 팔레트, 물감, 붓 등 미술 도구를 챙긴 후 미술 대회가 열리는 학교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다. 미술부 선생님은 일부러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았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서 대회가 열리는 이유도 있었지만 함께 가면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민철이가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 그림 주제가 뭘까?”

“글쎄…….”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민철이는 뭘가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마 오늘의 주제는 공원과 관련이 있을 거야. 지난번에는 박물관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도자기였잖아.”

덕규가 민철이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민철이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림 혹시 오늘의 주제는 연꽃이 아닐까?”

“맞아. 연꽃이 오늘 주제일지도 몰라. 덕진 공원에는 연꽃이 많이 피니까 말이야.”

“어휴, 난 연꽃은 자신 없는데…….”

은호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어느새 미술 대회가 열리는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 입구에는 미술 대회를 알리는 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잠시 후 미술 대회 진행 요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자, 지금부터 미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주제는 ‘바닷속 생물’ 입니다.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림 주제가 발표되자, 대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희와 다른 미술부 아이들도 한구석에 모여 수군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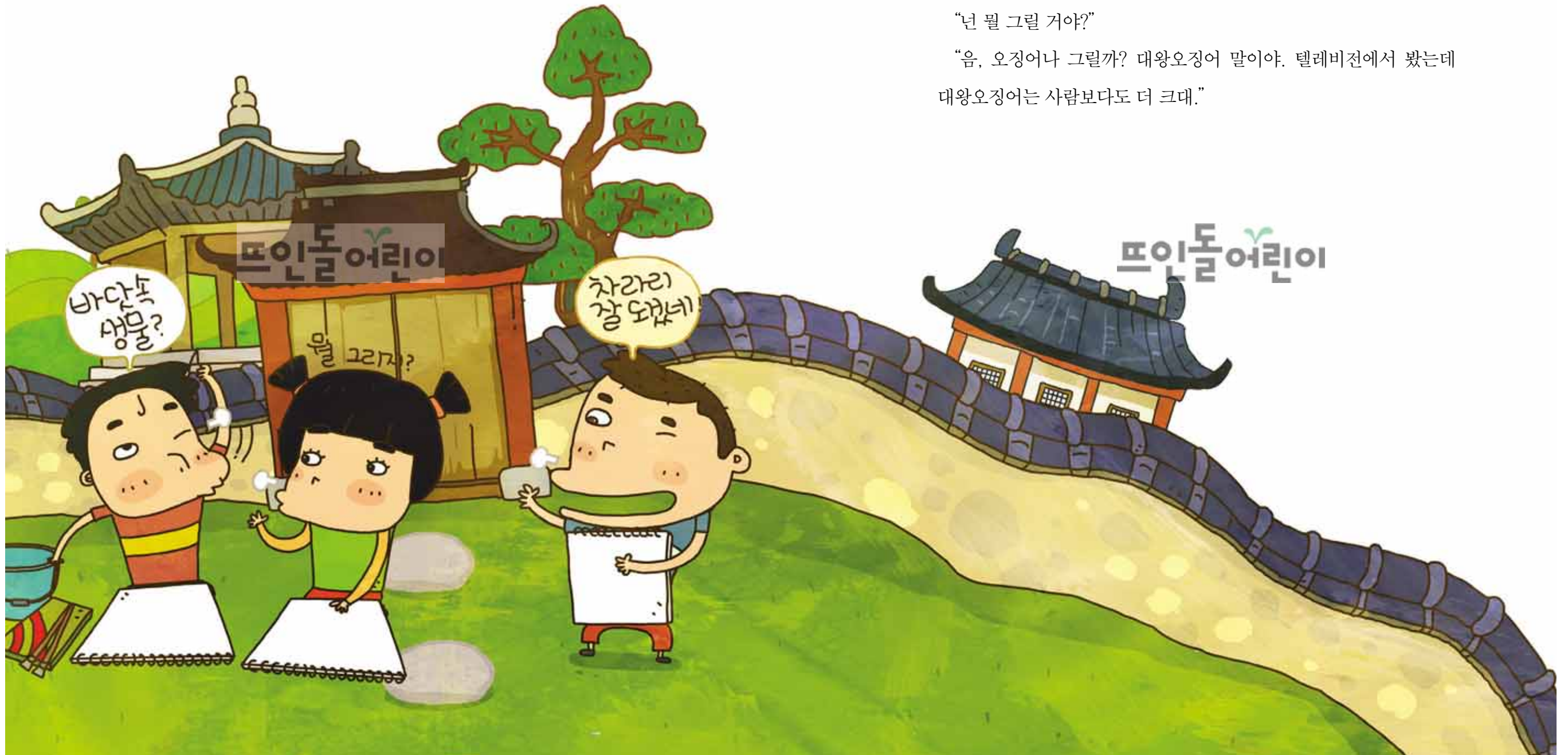
“뭐야? 공원이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

“야, 그래도 난 연꽃보다는 낫다.”

은호는 자신 없는 연꽃이 주제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인 모양이었는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넌 뭘 그릴 거야?”

“음, 오징어나 그릴까? 대왕오징어 말이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대왕오징어는 사람보다도 더 크대.”



아이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얀 도화지에는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봤던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서서히 채워졌다.

민철이와 은호는 거대한 오징어를, 덕규는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도화지 가득 그리기 시작했다. 하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를 그렸다.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속도가 빠른 아이는 10분 만에 스케치를 끝내고 물감을 칠했다.

그런데 진희는 예외였다. 30분이나 지났지만 도화지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상태 그대로였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훌쩍훌쩍 진희를 쳐다보았지만 진희는 연필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팔짱을 끼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민철이가 진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너 그림 안 그리고 뭐 해?”

진희는 진지한 말투로 대꾸했다.

“작품 구상 중이야.”

민철이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쏘았다.

“구상 중이라고?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그런데 여태 구상만 하면 어떻게 해? 은호 봐봐. 은호는 색칠도 거의 다 했잖아.”

“네 할 일이나 해. 구상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

민철이는 진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휴, 답답해. 아까부터 계속 콧노래만 부르고. 지금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라 학교 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한 거야.”

“그쯤은 나도 알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

“김민철! 상관하지 말고 네 그림이나 그려. 내 그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희가 민철이를 쏘아보았지만 민철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평소에 엉뚱한 행동을 하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몰라서 그래? 지난번 소풍 때 그 춤이 뭐냐? 여자가 품위 없게.”

진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가 잔뜩 났다. 마음 같아서는 민철이의 팔뚝을 세게 꼬집어 주고 싶었지만 그냥 참기로 했다. 그림 그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벌써 40분이나 지났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분뿐이었다.

아이들은 제각기 자신의 그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진희는 여전히 도화지에 스케치조차 하지 않았다. 미술부 아이들은 진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진희가 갑자기 무릎을 쳤다.

“그래, 좋아. 그걸 그리는 거야.”

진희의 행동을 보고 민철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또 엉뚱병이 도졌군.”

진희는 스케치도 하지 않고 바로 붓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진희는 도화지 한 모퉁이에 작은 눈 하나를 그리더니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검게 칠하기 시작했다.

민철이는 진희의 그림을 보고 도저히 입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진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림 그리기 싫으면 그냥 포기해!”

하중이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에서 기들었다.

“진희야, 너 왜 그래? 도화지에 온통 검은색을 칠하면 어떻게 해! 도대체 그게 뭐야!”

은호와 덕규도 한마디씩 했다.

“진희야, 신중하게 좀 그려.”

“미술부 선생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진희는 아이들의 참견에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꾸했다.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

어느덧, 그림 그리기 시간이 모두 끝났다. 그림을 제출한 미술부 아이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연단 앞에 모여 입상자 발표를 기다렸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진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덕성초등학교 최진희 양은 진행 본부로 오기 바랍니다.”

“진희야, 너 부른다.”

진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철이는 입술을 내밀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학교 망신 다 시키네. 진희 네가 그린 그림 때문이잖아.”

진희가 마음 졸이며 진행 본부 앞으로 가자 심사 위원장이 진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화지 전체가 까맣고 여기 모퉁이에 눈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뭐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심사 위원장은 입가에 열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제가 그린 그림은 고래입니다.”

“고래? 내가 보기엔 그냥 검은색인데…….”

“고래가 너무 커서 도화지에 다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만 그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가 봐도 좋아.”

진희가 자리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세 명과 최우수상 한 명입니다. 우수상은 초원초등학교 박버들, 미호초등학교 최나영, 풍남초등학교 우수희입니다. 그리고 영예의 최우수상은, 최우수상은 누구 일까요?”

사회자가 땀을 들이는 바람에 아이들의 초조한 마음은 더해 갔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는 아이도 있었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자리를 뜨는 아이도 있었다.

“최우수상은 금성초등학교 김유희입니다.”

최우수상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덕성초등학교 미술부 아이들은 크게 실망했다. 아무도 상을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이, 이게 뭐야.”

“자, 집에나 가자.”

아이들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사회자의 말이 다시 들렸다.

“오늘 대회에서는 특별상 하나를 더 수여하겠습니다. 특별상은 덕성초등학교 최진희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진희는 두 눈이 동그래졌다. 미술부 아이들도 깜짝 놀랐다.

아까 진희에게 미소를 보여 주었던 심사 위원장이 연단 위로 걸어 나와 진희의 그림을 높이 들었다.

“이 그림이 뭐 줄 아세요?”

아이들은 진희의 그림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화지에 검은색만 가득 칠해져 있는 진희의 그림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저게 뭐야?”

“무슨 그림이 저래?”

심사 위원장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그림은 고래입니다. 흔히 고래를 그린다고 하면 고래 몸 전체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래가 자신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래가 너무 커서 몸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고, 이 그림처럼 고래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사 위원장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웃거렸다.

심사 위원장은 이어 말했다.

“여러분, 그림이란 무엇인가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으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게 이 그림을 그린 최진희 양에게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미술부 아이들은 진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남들과 다르게 그리려고 깊이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구박만 했다니.

용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진희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희야, 축하해.”

민철이가 머리를 굽적거리며 진희에게 먼저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다른 미술부 아이들도 진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진희야, 고래라고 미리 말하지 그랬어. 네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린 네가 그림 그리기 싫어서 장난하는 줄 알았잖아.”

“그러게 말이야. 하여간 독특한 아이야.”

“진희 넌 사람 놀라게 하는 채주가 있단니까.”

진희도 미술부 아이들의 축하에 마음이 다 풀렸는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

미술부 아이들은 씩씩한 발걸음으로 학교를 향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군인 같았다.



이사도라 덩컨이 띄우는 편지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대의 선구자가 되라!

여러분은 이 세상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 힘은 바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고 발전시킨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움이란 옛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선 기존의 생각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해요. 우리는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말하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기존의 무용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끝으로 서는 토슈즈(신발)와 허리를 꼭 죄는 코

르셋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그리스 여신의 의상 같은 짧은 옷 하나만 두른 채 춤의 형식과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나의 춤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지요.

“춤이란 단순히 춤추는 동작이 아니라 춤추는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몸짓에 담아내어 표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틀에 사로잡혀서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의 틀을 깨고 표현하겠다.”

나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담긴 춤을 자유롭게 추었고 끝내는 기존의 무용보다 한층 발전된 현대 무용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중에는 예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창조력’이지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독특하고 창조적인 나만의 생각을 담아내야 해요. 앵무새처럼 남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창조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이 시대의 선구자가 되는 길 이랍니다.





프인돌어린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독특하고 창조적인
나만의 생각을 담아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이 시대의 선구자가 되는 길이랍니다.”





마가렛 대처 (1925~)

아버지 밑에서 열 살 무렵부터 정치를 배운 뒤, 서른 살에 본격적인 정치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는 스네 살이 되던 해,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영국의 경제를 부흥시켰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세 번이나 총리직을 연이어 맡은 최장기 총리이기도 하다.

- 마가렛 대처가 띄우는 편지
- 영국을 강한 나라로 키워 낸 최초의 여자 수상 — 마가렛 대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꿈꾸요





“애들아, 다음 주에 우리 학교 모델 대회 열리는 거 알지?”

“응.”

“맞아, 이번 대회에는 상품이 아주 많대. 일등을 한 학생에겐 장학금을 주고 그 학급에는 책 백 권을 준대. 그러니 이번에 꼭 우리가 일등을 해야 해.”

“그런데 각 학급 당 한 명이 대표로 나가야 하는데, 누가 나갔으면 좋겠니?”

반장인 지혜가 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가 다시 한 번 아이들에게 물었다.

“누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갔으면 좋겠니? 의견 있으면 말해 봐.”

“.....”

여전히 아이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답답했는지 손바닥으로 교탁을 쿵, 내리쳤다.

“다들 입에 지퍼 달았어? 이서 말해 봐. 패션쇼에 누가 모델로 나갔으면 좋겠니?”

여전히 아이들은 조용했다. 사실, 학급을 대표할 만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나 추천할 수도 없고 추천한다고 선뜻 나설 아이도 없었다.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튼 한 명은 출전해야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해야 해. 연습하고 옷도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없어.”

아이들은 다들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한 명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더 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였다. 복태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복태야. 누구 추천할 사람 있니?”

자리에서 일어난 복태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추천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니?”

“내가 나갈게.”

지혜와 반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복태에게 향했다.

“복태! 네가 나간다고?”

“그래. 내가 나갈게.”

“아, 알았어.”

지혜는 칠판에 복태의 이름을 크게 적었다.

지혜는 반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번 물었다.

“다른 의견 없니? 추천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복태처럼 자기가
나가고 싶은 사람도 괜찮아.”

“…….”

반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어떤 아이들은 지혜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복태가 우리 반 대표 모델로 나가는 걸로 할까?”

그러자 미화 부장인 미나가 벌떡 일어났다.

“미나야, 무슨 할 말 있니? 의견 있으면 말해 봐.”

지혜가 미나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미나는 잠시 복태의 눈치를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복태 외에 다른 사람이 모델로 나서지 않는다면 당연히 복태가 우
리 반 대표가 되겠지. 그런데 좀…….”

“그런데 좀, 이라니? 어서 말해 봐.”

미나는 다시 한 번 복태의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 상품도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 이왕이면 보다 더 경
쟁력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해.”

그러자 복태의 얼굴이 붉어졌다. 복태는 미나를 찌려보며 말했다.

“미나, 너! 지금 내가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 경쟁력 있는 사람
이…….”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냐?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나가. 나갈 용기도 없으면서…….”

복태의 말에 미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복태와 미나의 충돌이 심상치 않자, 지혜가 나섰다.

“복태와 미나, 너희 둘 다 그만둬.”

복태는 머리를 굽적거리며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먼저 미나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잖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다행히 복태와 미나의 충돌은 잠잠해졌다.

지혜는 반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까지 모델 후보는 복태뿐이야.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태가 우리 반 모델이 되는 거야. 다들 이의 없지?”

여전히 반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다.

순간, 지혜는 화가 났다. 그래서 교탁을 쿵, 하고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너희 정말로 이럴 거니? 다들 나 몰라라 구경만 하면 어떻게 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이 일이 해결되니? 제발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고 의견 좀 말해 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의사 표시 좀 하라, 말이지.”

지혜의 말이 끝나자, 반 아이들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잠시 뒤, 체육 부장인 태호가 입을 열었다.

“그냥 복태로 하자. 다른 후보도 없는데 더 이상 회의를 하면 뭐하니? 그냥 복태로 해.”

태호의 말에 지혜는 좀 기분이 상했다.

“태호 너, 지금 네 말의 의도가 뭐니? 대충 뽑고 대충 대회에 나가자는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 복태 말고 대안이 없잖아. 그럼 너에겐 뽕족한 수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자는 거잖아.”

“그럼, 지혜 너도 복태가 우리 반 대표로 나서는 게 별로라는 거냐?”

태호의 질문에 지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사실 지혜의 속마음도 미나의 의견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복태 외에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태가 나가야 하겠지만,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복태보다 더 나은 모델이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태호는 지혜의 대답을 재촉했다.

“지혜야, 복태로 결정할 거야? 아니면 다른 후보도 없는데 계속 회의를 할 거야? 네 의견을 말해 봐.”

지혜는 잠시 머뭇거렸다. 복태로 결정하자니 일등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고 그렇다고 회의를 계속하자니 복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나도 모르겠어.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복태로 결정할까? 아니면…….”

지혜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태호가 지혜의 말을 받아쳤다.

“반장이 뭐 그러냐?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히 해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순간,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어 찬우 또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지혜, 네 생각은 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해 봐. 반장이면 반장답게 말해야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야?”

모델 후보 선발 문제에서 갑자기 지혜의 리더십 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자 지혜의 입장이 점점 난처해졌다.

“여자가 반장을 하니까 사사건건 말썽이야.”

찬우가 제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그 소리를 들은 지혜가 순간 발끈했다.

“찬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여자 반장이 어쨌다고!”

“사실 그렇잖아. 반장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결론을 빨리 내야지. 그게 반장 역할 아니니?”

찬우의 뚝부러지는 말이 지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지혜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찬우가 미웠다.

“찬우 너, 지금도 나한테 불만 있니? 지난번 반장 선거 때, 나 때문에 반장 못 되서 그런 거야?”

순간, 교실이 술렁거렸다. 반 아이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반장 선거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찬우는 아직까지 서운한가 봐.”

“아냐. 지혜가 반장이니까 감정을 잘 조절했어야지. 이게 뭐냐?”

“그나저나 모델은 누가 되는 거야?”

지혜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복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나 때문에 일이 꼬인 것 같은데 나 모델로 나가는 거 그만둘래.”

그러자 지혜가 복태를 말했다.

“복태야, 너까지 왜 그래? 너 때문에 일이 꼬인 게 아니야. 나는 우리 반이 꼭 일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회의를 진행한 거야.”

“아무튼 너도 내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가는 게 썩 내키지 않잖아? 그렇지?”

“보, 보, 복태야. 너까지 왜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지혜는 마음이 답답했다. 반장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장 역할이 힘들고 어려웠다.

복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튼 나는 안 나가. 괜히 나갔다가 일등 못 하면 어떻게 하나? 너희도 날 비난할 거 아냐.”

교실은 조용했다. 더 이상 의견을 내는 아이도 없었다.

지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 우리 반만 모델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거 아냐?’

괜히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 같아, 지혜는 괴로웠다.

반 아이들은 멀뚱멀뚱 지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침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했다. 결국 지혜는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

“아앙.”

갑작스런 지혜의 반응에 반 아이들은 놀랐다. 두 눈이 동그아졌다.

“지혜야, 너 왜 그래?”

“너희 모두 미워! 너희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 날 반장으로 뽑은 거야! 나 반장 안 할래!”

지혜는 교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복도 끝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 밖으로 나와 지혜를 불렀다.

“지혜야, 어디 가? 지혜야!”

지혜는 눈물을 날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 반장 안 할래! 반장 같은 거 싫어!”

또인돌어린이



마가렛 대처가 띄우는 편지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상대를 리드하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시장이었어요. 그런 아빠는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요.

어느 날 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시장이니까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요.

“무슨 일이든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시장이 된 게 아니야. 난 국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장이 된 거지.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한 뒤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단다. 혹시라도 판단을 잘못해서 행동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빠의 말씀은 나의 좌우명이 되었고, 그 후 나도 정치인이 되

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지요. 훗날 난 영국을 대표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는 먼저 나라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나라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니까요.

물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양보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도 발휘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강대한 영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리더에게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리더는 통솔력을 발휘해야 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믿음을 줘야 하지요.

리더의 잘못된 판단은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답니다. 판단에 앞서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한다면 사람들은 답답해 하거나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므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길 테니까요.





프린돌어린이

“진정한 리더로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양보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밀고 나갔지요.
그 결과 난 국민들에게 믿음을 쌓을 수 있었답니다.”





마더 테레사 (1910~1997)

1928년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간 후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 살면서 세인트
메리고등학교의 교사·교장 등을 역임
했다. 1950년에는 '사랑의 선교회'를 설
립하고 빈민·고아·나병 환자·죽음을 기
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몸 바쳐 일해 왔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며,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마더 테레사가 띄우는 편지
- 세상을 환하게 비춘 봉사의 등불 — 마더 테레사



봉사는 세상을 더 밝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줘요

8

“뭐? 사랑 복지원에 봉사 활동을 가자고?”

“응.”

“난 싫어. 거기 갔다 온 이들이 그러는데 거기서 봉사 활동 하기 굉장히 힘들대.”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럼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아,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정미는 말꼬리를 내렸다.

“정미 넌, 조장이 되었으면 조원들을 이끌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반대만 하니?”

그러자 창호가 비꼬듯 말했다.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좀 그렇잖아. 마음이 끌려야 가는 거지.”

“야, 마음이 뭐가 중요해. 도덕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하지. 하여간



조장이 이러니 우리 조 점수가 늘 낮지.”

“뭐?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옆에 있던 경수가 짜증을 내며 정미와 창호의 말다툼을 말렸다.

“애들아! 그만 좀 싸워라. 말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

잠시 후, 정미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말을 꺼냈다.

“그래, 좋아. 창호 말대로 복지원으로 봉사 활동 가자. 그럼 됐지?”

“그래. 알았어.”

조원들은 힘없이 대답했다. 정미뿐 아니라 조원들도 사랑 복지원에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도덕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럼, 내가 복지원에 언제 가도 되는지 알아보고 연락해 줄게.”

“그래, 좋아.”

다음 날, 정미와 창호, 경수, 은희는 학교 정문 앞에 모여 학교 인근에 있는 사랑 복지원을 향해 걸어갔다.

사랑 복지원은 세 살에서 일곱 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울고 떼를 써서 복지원을 다녀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조원들은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정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러자 창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걱정 마. 그냥 돕는 척하면서 시간만 때우다 오면 돼. 원장님이 알아서 봉사 카드에 도장 찍어 주실 거야.”

“그래, 괜한 걱정하지 말자.”

정미와 조원들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다.

사랑 복지원에 도착하자 원장님이 앞마당에 나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들 오거라. 봉사 활동을 할 생각을 했다니 참 기특하구나.”

원장님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창호는 빙그레 웃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구나.”

정미가 원장님께 물었다.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뭘 해야 하죠?”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특별히 할 일은 없어. 그냥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 주면 된단다.”

“정말요? 그건 누워서 피자 먹기죠.”

“뭐? 누워서 피자 먹기? 하하하.”

원장님은 크게 웃으며 정미와 조원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열 명 정도의 아이들이 웅기중기 모여 놀고 있었다.

정미와 조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오늘 너희랑 함께 놀아 줄 언니 오빠야!”

정미의 말에 한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정미에게 손을 내밀었다.

“언니, 나랑 저기서 인형 놀이 하자.”

아이의 손은 뭘 하다 왔는지 여기저기 새까만 흙이 묻어 있었다.

“아이, 더러워.”

정미는 아이의 손을 잡기가 영 꺼림칙했다.

다섯 살쯤으로 보이는 진수는 창수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형, 나 쉬 마려.”

“뭐? 앗! 화장실이 어딴지? 잠깐만 참아 봐.”

창호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허둥지둥했다. 그때, 창호의 발밑이 갑자기 축축해졌다.



“앗! 차가워!”

창호는 얼른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진수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만 것이었다.

“아악! 이게 뭐야!”

창호는 자기도 모르게 크게 고함을 쳤다. 진수는 그런 창호를 보곤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앙!”

다른 아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수는 혜진이라는 여자 아이가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 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고, 은희는 세 살배기 용호가 등에 업혀 내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원장님은 진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왔다. 원장님은 정미와 조원들의 모습을 보고 곧 아이들의 마음을 눈치챘다.

“애들아, 여기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사랑의 손길이 부족해서 그런 거란다. 내가 많이 돌봐 준다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어렵구나. 너희가 오늘은 이 아이들의 진짜 형, 누나라는 생각으로 대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원장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도덕 점수 때문에 이곳에 온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정미는 창호에게 새침하게 말했다.

“창호, 네가 여기 오자고 했으면서 제일 호들갑스럽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반대했잖아. 마음에도 없는데 도덕 점수 받으려고 이게 뭐니?”

“그럼 다른 방법이 있었냐? 조장이 무능하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나 오고 그러지!”

“뭐? 너 말 다 했어?”

옆에 있던 경수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야 너희는 여기까지 와서 싸움이야?”

경수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어 은희도 앉았다.

정미는 어깨가 축 처진 조원들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온 거 원장님 말씀처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놀아 주자.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갈 거야.”

조원들은 정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와 조원들의 말을 듣던 원장님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정미는 아이에게 다시 다가갔다.

“이름이 뭐야?”

“미영이.”

“미영아, 언니랑 먼저 손 씻고 인형 놀이 하자. 인형은 이렇게 저 분한 손으로 만지면 싫어해.”

정미가 미영이의 손을 잡자 미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외동딸인 정미는 가끔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챙겨 주다 보니 미영이가 꼭 자신의 동생처럼 느껴졌다.

창호는 진수를 깨끗하게 씻겨 옷을 입혀 주었고, 경수와 은희도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놀아 주었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와 조원들은 마음이 참으로 행복했다. 도덕 점수도 잘 받을 테고, 예쁜 동생들도 생겼기 때문이다.

창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 말대로 사랑 복지원에 가니까 좋지?”

정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라고? 진수가 오줌 싸다고 놀라서 소리친 게 누군데?”

“야, 처음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내가 목욕도 시켜 줬단 말이야. 그러는 너 어땠는데?”

“난 이제부터 미영이를 내 동생 삼기로 했어. 앞으로 자주 와서 미영이랑 놀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줄거야. 너처럼 단순한 애가 어떻게 내 깊은 마음을 알겠니?”

“뭐? 내가 단순하다고?”

옆에 있던 경수가 ‘쯔쯔쯔’ 혀를 차며 말했다.

“하여간 애네 둘은 함께 있기만 하면 싸운다니까. 이러다 너희 둘 정들겠다. 둘이 결혼해라.”

“뭐? 결혼? 내가 미쳤냐?”

정미는 고개를 힘차게 내저었다.

그러자 창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나도 너랑은 싫어. 너랑 결혼하려면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아이들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새털같이 가벼워 날아갈 것 같았다.



마더 테레사가 띄우는 편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봉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먼저 지치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봉사를 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봉사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한평생을 가난하고 험벗은 이웃을 도우며 살았어요. 물론 그런 삶 속에서 많은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나의 봉사와 희생으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내가 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내게 물었어요.

“수녀님, 부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수녀님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세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허리 굽히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젊은 시절 캘커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창문 너머로 걸인이나 심하게 아픈 환자들이 보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원을 벗어나 걸인이나 환자들에게 다가가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평화의 집을 지어 그곳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쳤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을 베풀었지요. 바로 어머니가 자식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친구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럼 분명 마음이 행복해질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봉사의 등불 마더 테레사



테레사 엄마는 어린 딸을 데리고
봉사 활동을 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매번 이 늙은이를
챙겨 주시고.....

아닙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죠.

토닥 토닥

할아버지
시원하시죠?

그래, 아주
시원하구나!

테레사,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네, 엄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단다.

예, 그렇지요.

열여덟 살이 되던 해, 테레사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엄마에게 수녀가 되겠다고 말하자
엄마는 깜짝 놀랐다.

그래, 수녀가 되어
남을 도우면서
평생을 살 거야.

뭐라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수녀가
되겠다는 거니?

수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늘 제 곁에
계시잖아요.

테레사는 큰 나무 밑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무려 95개의 선교회가 세워졌다.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한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프린돌어린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봉사를 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봉사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테레사는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왔다.

수녀님의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인돌어린이



또인돌어린이